

# 11번가, 유기묘 아이돌 그룹 '11키티즈(11kitties)' 캠페인 화제...동물권 인식 제고, 착한 소비 독려에 앞장서

#11번가 #11키티즈 #ESG경영 #동물권 #가치소비 #MZ세대

지난 6월, 11번가가 세계 최초 유기묘 아이돌 그룹 '11키티즈(11kitties)'를 선보여 화제 물이 중 작년에 이어 유기동물 입양 독려 캠페인을 전개하여 11번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줄 것으로 전망됨

11번가가 지난 6월, 세계 최초 유기묘 아이돌 그룹 '11키티즈(11kitties)'를 결성해 화제를 모았다. 11키티즈는 11번가와 동물자유연대가 협업한 '2022 희망쇼핑 캠페인'으로 유기동물의 입양 독려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 중인 유기묘로 채워진 이 프로젝트 그룹은, 메인 멤버 6마리와 연습생 5마리로 구성돼 있다. 메인 멤버가 입양되면 연습생 고양이가 그 자리를 채우는 로테이션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 6월 20일 공개된 11키티즈의 데뷔곡 'Take me'는 공개 9일 만에 500만 회가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달성하며 온라인에서 높은 주목을 얻었다. 조회수 공약(조회수당 11원, 2주 내 500만 뷰 달성 시 2배 액수 기부)을 내걸었던 11번가는 동물자유연대에 추가 후원금 1억 1천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희망 스토어 모델로 발탁된 11키티즈는 상품 구매만으로 고객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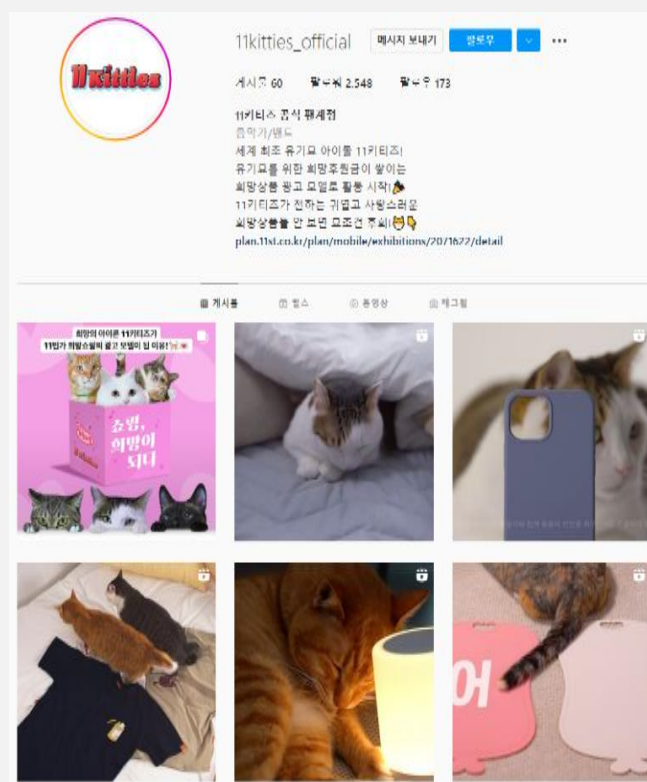
11번가는 2013년부터 '희망쇼핑'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고객들은 희망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고객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2021년, 가수 이승윤이 참여했던 유기·반려동물 보호 캠페인 '쇼핑, 희망이 되다'에 이어 올해도 동물 복지 캠페인을 기획, 지속성과 진정성 측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11키티즈 캠페인을 통해 11번가는 동물복지, 환경보호 등에 관심 갖는 젊은 소비자층을 가치 소비로 이끌어 고객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ESG 경영에 앞장서는 긍정적인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 11번가, '11키티즈(11kitties)' 캠페인 화제...동물권 인식 제고, 착한 소비 독려에 앞장서

유기동물 입양 독려 및 고객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 11키티즈 메인 멤버 소개



▲ 11키티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 11키티즈가 모델로 발탁된 희망쇼핑 광고

Source : 11번가 홈페이지 / 11번가 공식 인스타그램